

ONE WORLD ONE FLOWER
INTERNATIONAL BUDDHIST
FILM FESTIVAL

OIBFF











2024

세계일화 국제불교영화제

PROGRAM BOOK

주최  사립법인
남마다 종은남

주관  동국대학교  영남대학원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대중문화콘텐츠연구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불교조계종 추무원  동국불교중앙신도회  동국대학교총동창회  동국대학교연극영화과총동창회  불교신문  범보신문  현대불교 BBS  불교방송  BTN 불교신문전공인 대우건설 bbs 전자랜드

CONTENT |

| | |
|--------|----|
| 소개 | 04 |
| 극장상영안내 | 16 |
| 상영스케줄 | 17 |
| 장편 | 22 |
| 단편 | 44 |
| 청소년영화제 | 62 |
| 조직구성 | 65 |
| 만든사람들 | 66 |
| 색인 | 68 |



Introduction

소개



공동조직위원장

사단법인 날마다 좋은날 이사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주요 식

1700년 동안 한국불교는 다양한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며 발전해 왔습니다. 오랜 역사만큼 수많은 시련과 위기도 있었지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지속적인 발전과 창조적 계승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올해로 4회째 열리는 2024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는 수행자의 삶부터 불교의 보편적 가치를 해석하는 세계인의 시각까지 다양한 섹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해외 우수 영화제 작품들을 엄선하였습니다. 인간과 삶에 대해 고찰하며 예술성과 대중성을 갖춘 작품들이 현대인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영화제가 한국불교 중흥의 초석이 됨은 물론, 불교가 가진 무한한 콘텐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집행위원장님을 비롯한 실무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영화제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Co-Chairman of
Organizing Committee

Yoonsik Joo

For 1700 years, Korean Buddhism has blossomed various cultural arts. In the history, there have been numerous trials and crises. However we continues our efforts to evolve and pass down our culture to next generation in this changing times.

The 2024 One world One Flower International Buddhist Film Festival, which is being held for the Fourth year, is composed of sections from the life of the practitioner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universal values of Buddhism by global citizens.

Moreover, we have carefully selected excellent films from other prestigious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that are being shown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ese films contemplate life and possess both an artistic view and popular appeal. They are expected to provide great comfort and enlightenment to modern people.

It is our aspiration that One world One Flower International Film Festival will not only underpin the resurgence of Korean Buddhism, but also afford to corroborate and enhance the limitless potential embodied within the content that Buddhism provides.

Introduction

소개



동국대학교 총장 윤재웅

여름이 남긴 연꽃 향기가 맴도는 9월입니다. 반갑습니다. 2024년 세계일화 국제불교영화제 조직위원장을 맡은 동국대학교 총장 윤재웅입니다. 불교와 영화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성원 속에서 어느덧 우리 영화제가 4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세계일화(世界一花), 세상 모든 것은 한 송이의 꽃이라지요. 나와 이웃도, 산천초목도, 삼라만상 모든 것이 다 한 송이의 꽃입니다. 우리 영화제는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서 피워낸 꽃들을 가득 모아 하나의 꽃다발로 엮어 선보이고자 합니다. 그 모양과 향내는 각기 다르지만 불교라는 뿌리 속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삶과 진리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건네는 위로와 깨달음이 하나의 흙씨가 되어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다른 꽃을 피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름이면 어김없이 피어나는 연꽃처럼, 우리 영화제도 오래도록 그 전통을 이어가는 연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로운 광명이 늘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기 2568년 9월 9일 동국대학교 총장 윤재웅

Co-Chairman of
Organizing Committee

Jaewoong Yoon

It is September, lingering with the scent of lotus flowers. I am Yoon Jae-Woong, the President of Dongguk University and Chairman of the 2024 One World One Flower International Buddhist Film Festival. Pleased to meet you. Amidst the support of all who cherish Buddhism and film, our festival has now reached its Fourth year.

It is said that the world is like a flower. You, your neighbors, nature, and all things and phenomena in the universe are each unique, like individual flowers. Our film festival aims to gather the flowers blossomed from individual's lives into a bouquet. Though the shapes and scents differ, rooted in Buddhism, each one poses its own questions about life and truth in its unique way. It is our hope that the solace and enlightenment offered by these will become seeds, blooming new flowers within your hearts.

Just as the lotus unfailingly blooms each summer, we hope our festival will continue this tradition as an annual event for many years to come. We kindly ask for your continued support. May the Buddha's enlightenment always shine in your lives.

September 9, 2568 Buddhist Era
Yoon Jae-woong, President of Dongguk University

Introduction

소개



집행위원장

최진수

동국대 연극영화과 졸업, 동국대 연극영화과 총동문회장 역임

최진수 감독은 한국 영화계 장편 영화 안성기씨 주연의 '헤어드레스'로 감독으로서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는 현대적 리얼리즘과 독창적인 영상미를 결합한 '최진수 스타일'을 창조해 냈으며, 영화 '피아노 치는 대통령'에서 안성기와 최지우의 열연을 이끌어내고, 이미숙과 이정재가 주연한 영화 '정사'를 기획하여 영화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최 감독은 1,000편이 넘는 다양한 CF 작품을 통해 '대한민국 광고 대상'을 다수 수상했으며, '칸느 광고제'와 '뉴욕 페스티벌'에서도 본상을 수상하며 광고계에서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그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작업들은 영화, 드라마, 연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였습니다.

현재 그는 '2024 세계일화 국제불교영화제'에서 '불교-대중 속으로'라는 주제로 불교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종교와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최진수 감독의 작품들은 언제나 혁신과 도전을 통해 대중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며, 그의 예술적 비전은 한국 문화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Festival Director Jinsoo Choi

Director Choi Jinsoo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Theater and Film. He served as the president of the Theater and Film school Alumni Association in Dongguk University.

Director Choi debuted with the feature film 'The Hair Dresser' starring Ahn Sung-ki, marking his first step as a director. He created the 'Choi Jin-soo style,' combining modern realism with unique visual aesthetics, and led remarkable performances by Ahn Sung-ki and Choi Ji-woo in the film 'The Romantic president' leaving a strong impression in the film industry with film 'An Affair,' starring Lee Mi-sook and Lee Jung-jae.

Director Choi Jin-soo has won multiple 'Korean Advertising Awards' through over a thousand diverse commercial works, and has also won main prizes at the 'Cannes Lions' and the 'New York Festival', demonstrating his exceptional capabilities in the advertising industry. His creative and experimental works continue to deeply move audiences and leave unforgettable impressions across various fields such as film, drama, and theater.

Currently, he is leading the popularization of Buddhism with the theme 'Buddhism into the Mainstream' at the '2024 One World One Flower Buddhist Film Festival', breaking down the boundaries between religion and art. He is opening new horizons. His works always provide a unique experience through innovation and challenge, and his artistic vision significantly impacts the Korean culture.

Introduction

소개



집행위원장

정달영

동국대 연극영화학과 졸업, 현 동국대 영상대학원장

정달영 교수는 예술경영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학자이면서 문화기획자입니다. 그는 예술과 경영의 접목을 통해 문화예술 산업의 발전을 연구하며, 예술기관의 운영, 문화정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와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국립극장진흥재단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비상임 이사이고, 서울특별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위원, 안전행정부 행사자문위원,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2024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에 공동 집행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본 행사가 영화제라는 경계를 넘어서 문화행사로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다수의 학술 논문과 저서를 출판하였으며, 그의 저서 「공연예술과 경영」(2023년)은 동골과 중국에서도 출간될 예정입니다. 또한, 그는 실무 경험과 학문적 연구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예술경영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을 제공한 공로로 2023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정 교수는 학계뿐만 아니라 예술 현장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약 30여 개의 다양한 지역축제와 문화행사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2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주제공연' 프로듀서로 참여하여 박람회 성공에 기여하였으며, 공동기획자로 초기 개발에 참여한 뮤지컬 '마리 퀴리'가 뮤지컬의 본 고장인 런던 웨스트엔드에 진출하기도 하였습니다.

Festival Director

Dalyoung Jeong

Professor Jeong Dal Young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Theater and Film in Dongguk University. Dean of Media school in Dongguk University.

Professor Jeong is recognized worldwide in the field of arts management. He studies the development of the cultural arts industry through the integration of art and management, conducting in-depth research and activities on various topics such as the operation of arts institutions and cultural policies. Currently, he serves as a non-executive director for both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 Foundation of Promotion and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Foundation. Moreover, he has held positions as a member of the Seoul Future Heritage Preservation Committee, an advisory member of event committee for th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in South Korea, and an advisory member for the Korea Association of Performing Art Producer. Finally, he is also co-directing the 'One World One Flower International Buddhist Film Festival', working to expand the event beyond a mere film festival into a broader cultural event.

Professor Jeong has published numerous academic papers and books, and his book "Performing Arts and Management" (2023) is scheduled to be published in Mongolian and Chinese. Based on his practical experience and academic research, he was awarded the 'Minister of Education Commendation' in 2023 for providing systematic and practical education in arts management to students. Professor Jeong is actively involved not only in academia but also in the art field, participating in about 30 different local festivals and cultural events. He contributed to the success of the 'Suncheon Bay International Garden Expo' in 2012 as a producer for the main performance and was involved in the initial development as a co-producer of the musical 'Marie Curie', which made its way to West End of London, the heartland of musical theatre.

Introduction

소개



프로그램머

김세환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영화영상제작학과 교수

독일 만하임대학교에서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영상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지원하는 연구와 사업을 담당하였다. 2022년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영화영상제작학과 강의전담교수로 임용되면서 국내외 불교 영상콘텐츠의 발굴 및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그는 영화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영화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화로 소통하는 메타 콘텐츠로 여기며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에 참여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시대 정신을 정확히 반영하는 동시에, 현대 문명의 산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작점으로서 불교영화가 소통되는 영화제를 기획하였다.

Programer

Sehwan Kim

After earning Ph.D in communication studies from Mannheim University in Germany, he was in charge of research and projects supporting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film and television contents at the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In 2022, he was appointed as an assistant professor in the film school at Dongguk University. He contributes to spread of Buddhist film and television program at home and abroad.

He participates in OIBFF, not looking at the film festival as a medium to show films. but as a meta-content to communicate with films. Accordingly, he programs to accurately reflect the zeitgeist of this time and to communicate Buddhist films as a start for resolving the problems of modern civilization.

Introduction

소개



사무총장 이강석

2021년 코로나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시작된 우리 영화제가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가을의 문을 여는 하나의 행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 세계일화 국제불교 영화제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영화제는 불교 사상을 기반으로 생명과 삶, 진리와 사랑에 대한 따뜻한 시각이 담긴 작품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술성과 대중성을 두루 갖춘 작품들로 가득 채운 만큼 불교를 좋아하는 분들도, 아직은 불교가 낯선 분들도 쉽고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청명한 하늘 아래 머물어 가는 가을만큼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한 울림의 한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영화제가 불교 콘텐츠의 힘을 확인하고 불교문화의 부흥을 이끌어가는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제를 찾아주신 모든 분께 평화와 안녕을 기도드립니다.

Director General
KangSuk Lee

Our festival, which began in the unprecedented circumstance of the COVID-19 pandemic in 2021. Moreover, our festival has established itself as an event that opens the door to autumn, thanks to your love and support. We are pleased and grateful to be hosting the Fourth year One World One Flower International Buddhist Film Festival. Our festival aims to share Buddhist philosophy and offer warmth of life, truth, and love. Our Festival is filled with works that possess both artistic quality and popular appeal. We hope that both those who appreciate Buddhism and those unfamiliar with it, will enjoy our festival.

Just as the clear skies and ripening autumn deepen, we hope this festival becomes a moment of profound resonance in your hearts. Furthermore, we wish our festival will confirm the power of Buddhist content and serve as a cornerstone in the revival of Buddhist culture. We will continue to strive to grow and develop as a festi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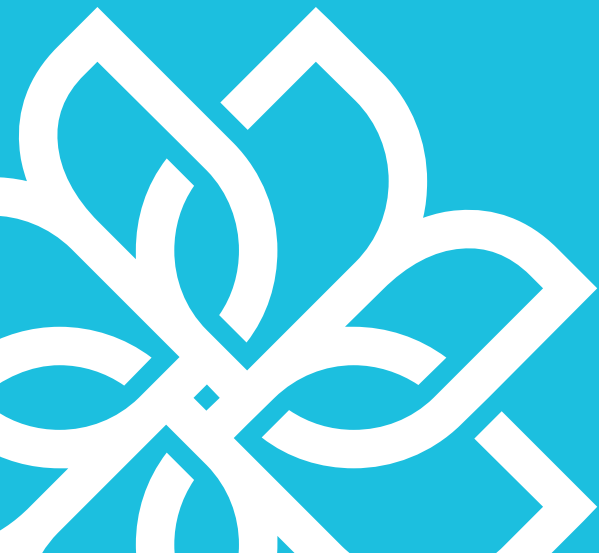
To everyone who has visited our festival, we pray for your peace and well-being.

Screening Schdule

상영 스케줄

| | DAY1 9월 9일 월요일 | DAY2 9월 10일 화요일 | DAY3 9월 11일 수요일 | DAY4 9월 12일 목요일 |
|------------|---------------------------|---|---|---|
| 세션1 중강당 | | 09:00~10:38 단편 컬렉션 1 (‘98) | 09:00~10:50 단편 컬렉션 2 (‘110) | 09:00~10:18 단편 컬렉션 3 (‘78) |
| 세션2 중강당 | | 10:58~12:33 다시 태어나도 우리 (‘95) | 11:10~13:01 열두 달 휴을 먹다 (‘111) | |
| 세션3 중강당 | | 12:53~14:34 카르마링크 (‘101) | 13:21~15:03 직지코드 (‘102) | |
| 세션4 중강당 | | 14:54~16:39 어른 김장하 (‘105) | 15:23~16:54 수궁 (‘91) | |
| 세션5 중강당 | | 16:59~19:06 독스박+관객과의 만남 (‘97+30=127) | 17:14~18:47 더 납작 엮드릴게요 +관객과의 만남 (‘63+30=93) | 17:00~18:00 폐막식 |
| 세션6 중강당 | 19:00~21:00 개막식 | 19:26~20:56 Buddha in Africa [개막작] (‘90) | 19:07~20:37 Buddha in Africa [개막작] (‘90) | 18:00~19:53 Looking For a Lady with Fangs and a Moustache [폐막작] (‘113) |

프로그램 |



| Preface

머릿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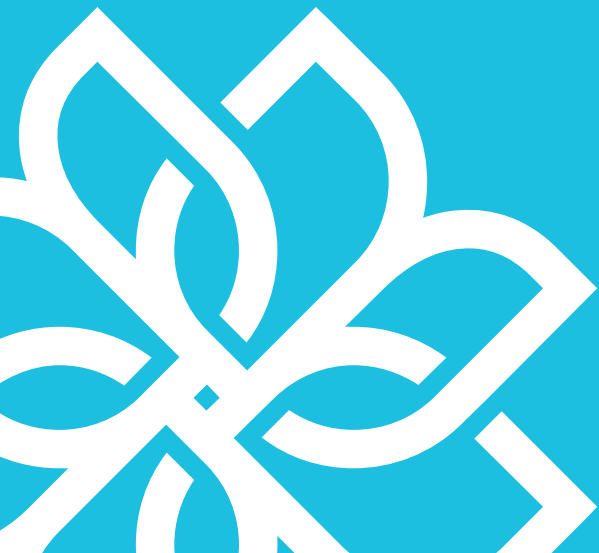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는 불교를 소재로 하는 작품은 물론 삶과 인간, 그리고 보편적 진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영화들을 모아서 선보이는 영화제입니다. 영화라는 게 대중적 매체인 만큼 불자를 넘어 많은 대중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 삶의 지침을 제시하는데 우리 영화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회를 맞이하는 올해에는 전 세계 110개국에서 1,730편에 달하는 단편영화가 응모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인도, 이란, 미국, 중국, 이탈리아, 터키, 프랑스, 브라질, 스페인, 러시아가 지원작을 가장 많이 낸 상위 10개국입니다. 응모작 중 최종적으로 23편을 선정하여 단편 컬렉션으로 상영합니다.

One World One Flower Buddhist film festival showcases films that not only focus on Buddhism but also raise fundamental questions about life, humanity, and universal truths. As cinema is a popular medium, it plays a significant role in spreading Buddha's words and offering guidance on life to audiences, beyond just the faithful.

In its Fourth year, the festival has received short film entries from 110 countries around the world, totaling 1730 films. The top ten countries contributing the most entries are India, Iran, the USA, China, Italy, Turkey, France, Brazil, Spain, and Russia. We select 23 films among the entries for our short film collection.

장편 |



Looking for a Lady with Fangs and a Moustache

송곳니와 수염을 가진 여인을 찾아서

키엔체 노르부 | 네팔, 싱가포르 | 드라마, 미스터리

Khyentse Norbu | Nepal, Singapore | Drama, Mystery

2019 | 113 min | 15 | 2019 Morelia International Film Festival

네팔의 성공한 기업가 텐진은 버려진 사원을 카트만두 최초의 유럽식 카페로 개조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이상한 환영이 그를 잠식하기 시작하는데… 주변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결국 카페를 개장하는 텐진. 오픈 축하 기념 파티에서 만난 승려는 그 환영은 생명 고갈을 알리는 신호라며, 송곳니와 콧수염이 있는 다키니를 찾지 못하면 7일 안에 죽게 될 것이라 경고한다.

Tenzin, a successful Nepal entrepreneur, intends to transform an abandoned temple into the first European-style café in Kathmandu. Alongside this, strange visions begin to consume him. Despite concerns from those around him, Tenzin eventually opens the café. At the opening party, a Monk warns him that the visions are a sign of his draining life force, and if he fails to find the an elusive lady with fangs and moustache within seven days, he will perish.

감독설명

Director's Bio

부탄 출신의 영화감독이자 승려.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이 만든 영화 '리틀부다(1996)'의 자문역할을 맡아 영화와 인연을 맺었다. 감독 데뷔작으로 '컵(1999)'이 있으며 이후 '나그네와 마술사(2003)', '바라 : 축복(2013)', '헤마 헤마(2016)' 등 왕성한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Filmmaker and Monk from Bhutan, also known as Dzongsar Jamyang Khyentse Rinpoche. He worked as a consultant for Bernardo Bertolucci's work 'Little Buddha'(1993). Since then, he made his debut with a highly acclaimed film. 'The Cup(1999)'. His major works are 'Travellers and Magicians'(2003), 'Vara: A Blessing'(2013), 'Hema Hema: Sing me a Song While I wait(2016)' and so 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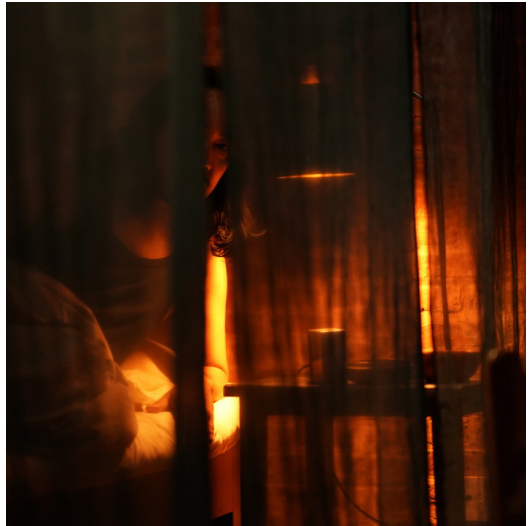


 프로그래머 코멘트

Programmer Comment

영화 <컵>으로 우리에게도 친숙한 키엔체 노르부의 다섯 번째 장편영화로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한 즐거움을 주는 수작입니다. 와이드 스크린 방식으로 촬영한 화면은 우아한 구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풍부한 색감은 보는 즐거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움과 즐거움은 물질적 성공을 추구하는 세속적 캐릭터인 주인공이 더 이상 욕망에 얽매이지 않고 더 큰 영적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잘 보여줍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영되는 이번 작품을 통해 불교 영화의 색다른 즐거움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Khyentse Norbu's fifth feature film. Indeed, it is a masterpiece that provides continuous amusement without being flashy. This Film shots in wide-screen, the elegant compositions and rich colors enhance the viewing pleasure. This beauty and enjoyment effectively depict the journey of the protagonist, a secular character pursuing material success, who moves beyond desires to greater spiritual enlightenment. We hope you experience this unique pleasure of Buddhist cinema with its first screening in our country.



| Becoming who

다시 태어나도 우리

문창용, 전진 | 한국 | 다큐멘터리

Moon Chang-yong, Jeon Jin |
South Korea | Documentary

2016 | 95 min |  | 2017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인도 최북단 라다크 마을에 사는 양뚜.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매력을 가졌지만 사실 그는 티베트 불교 고승 린포체로서의 전생을 기억하는 특별한 소년이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한 스승 우르간과 함께 여러 계절을 보내며 삶의 동반자가 된 두 사람. 전생의 사원을 찾고 진정한 린포체로 인정받기 위해 어린 소년 양뚜와 노스승 우르간은 3000km에 달하는 금지된 땅 티베트로 떠나게 된다.

In northern India's mountainous Ladakh region, there is a boy name Angdu. He is an innocent boy with heart of gold. Moreover, he is a one who remembers his previous life as a Tibetan Buddhist high lama, Rinpoche. With his great mentor Urygan, they have become life companions through the seasons. To find the temple from his past life and be recognized as a true Rinpoche, the mentor and the young boy embark on a journey to the forbidden lands of Tibet, covering a distance of 3,000 kilometers.

감독설명

Director's Bio

문창용 감독은 방송과 영화 다큐멘터리 작업을 병행하고 있는 PD다. 자신의 눈으로 본 세상을 편견 없는 프레임 속에서 파스하게 담아낸다. 주요작품으로 '나디아의 산(2016)', '행복을 파는 가게(2013)', '18분의 기적(2012)' 등이 있다. 전진 감독은 제작자이자 감독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시대유감, 삼풍 (2020)', '밥정 (2018)' 등을 제작했다.

Moon Chang Yong is a Producer who works on both TV broadcasting and film documentaries. He captures the world as he sees it warmly within a frame free of prejudice. His major works include 'Nadia's Mountain (2016)', 'Hectare of Happiness (2013)', '18 Minutes that Changed the World (2012)'.

Jeon Jin also works as a director and producer in 'Becoming who I was(2016)'. Her major production works include, 'We Built This City: Sampoong (2020)', 'The Wandering Chef (2018)'.



 프로그래머 코멘트

Programmer Comment


베를린, LA, 시애틀, 토론토, 모스크바. <다시 태어나도 우리>가 수상한 국제 영화제들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진가는 세계가 알아본 뛰어난 영상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노승과 동승의 아름다운 동행은 서로를 섬김으로써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이자, 한국 사회에 던지는 울림입니다. 어느덧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 다큐멘터리로 평가받는 <다시 태어나도 우리>에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가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Berlin, LA, Seattle, Toronto, Moscow. These are the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where <Becoming who I was> has won Film awards. Furthermore, the true value of this film is not solely in the outstanding visual beauty that the world recognizes. It is beautiful journey between the old mentor and his young pupil shows mutual respect and consideration for humanity through their service to each other. This is why One World One Flower International Buddhist Film Festival focus on this movie.



| A Man Who Heals the City

어른 김장하

김현지 | 한국 | 다큐멘터리
Kim Hyeon-ji | South Korea |
Documentary
2023 | 105 min | 

경남 진주의 어느 한약방에는 60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약사 김장하 선생님이 있다.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지만 영광도 명예도 좇지 않고 침묵 속에서 고요하게 사랑을 나누는 사람. 타인을 위한 나눔은 아깝지 않지만 자신을 위한 것은 아끼고 또 아끼는 사람. 진정한 어른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는 시대, 마음을 울리는 좋은 어른 김장하의 이야기.

In Kyong-Nam, Jin-ju, traditional Korean herbal medicine shop, there is a herbalist who has kept his position for over 60 years. He has donated all his wealth to society but pursues neither glory nor honor, only sharing love in silence. He does not hesitate to give to others but is frugal when it comes to himself. In an era where the true meaning of being an adult is fading, this is a touching story of a genuinely good adult Kim Jang-ha.

감독설명
Director's Bio

김현지 : 경남 MBC의 제작 PD. 지역의 특수성, 보편성을 아우르면서도 대중의 공감을 살 수 있는 작품들을 제작하고 있다.

Kim Hyeon-ji is a Kyong-nam MBC Producer. She creates works that encompass both uniqueness and universality, while also gaining the sympathy of the general public.



 프로그래머 코멘트

Programmer Comment

어른과 꼰대. 영화는 둘 사이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어른은 삶의 이유에 대한 지식 이른바 노와이(know why)를 알려주지만, 꼰대는 살아가는 기술인 노하우만을 강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른 김장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진정한 어른의 이야기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실천하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은 단순히 누군가의 선행을 넘어 모든 이들이 가져야 할 연민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어른 김장하>가 전하는 따듯하지만, 진중한 메시지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Berlin, LA, Seattle, Toronto, Moscow. These are the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where <Becoming who I was> has won Film awards. Furthermore, the true value of this film is not solely in the outstanding visual beauty that the world recognizes. It is beautiful journey between the old mentor and his young pupil shows mutual respect and consideration for humanity through their service to each other. This is why One World One Flower International Buddhist Film Festival focus on this movie.



| Buddha in Africa

아프리카의 부처

니콜 샤퍼 | 스웨덴, 남아프리카공화국 | 다큐멘터리

Nicole Schafer | Sweden, SouthAfrica | Documentary

2019 | 90 min | 15 | 2019 Chicago International Children's Film Festival

아프리카 말라위에 세워진 중국계 불교 고아원. 에녹 알루는 그곳에서 마을의 전통과 중국의 유교 그리고 불교 사상을 기반으로 한 교리를 배우고 있다. 중국어로 말하고, 부처를 믿으며 쿵후를 익히는 고된 수련 과정을 거치는 에녹에게 결정의 순간이 다가온다. 고향 마을의 친척들에게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대만으로 갈 것인가.

In Malawi, Africa, there is an Chinese background orphanage. Enock is learning the traditions of the village, the traditions of Confucianism, and the teachings based on Buddhist ideology there. Speaking Chinese, believing in Buddha, and undergoing a rigorous training process to learn kung-fu, Enock faces a decisive moment. Will he return to his relatives in his hometown, or will he go to Taiwan?

감독설명

Director's Bio

니콜 샤퍼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감독이자 프로듀서. 편집자와 촬영기사의 일도 겸하고 있다. 5년 동안 촬영한 첫 장편 다큐멘터리 <아프리카의 부처>는 더반 국제 영화제에서 최우수 남아프리카 다큐멘터리 영화상을 수상했다.

Nicole Schafer is a director and producer from Republic of South Africa, who also works as an editor and cinematographer. Her first feature-length documentary, "Buddha in Africa" which she filmed over five years, won the Best Documentary Award at the Durb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프로그래머 코멘트

Programmer Comment

상대성 이론. 서로 다른 상대 속도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같은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간으로 인식한다는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물리학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학을 넘어 우리의 일상에도 적용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기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아프리카의 부처>는 상대성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합니다. 사랑과 자비로 시작한 전법이 누구에게는 강요와 탄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구 기독교의 제국주의적 약탈에 신음했던 아프리카에서 동양 불교가 비슷한 오류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아프리카의 시각으로 같이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Theory of Relativity: Einstein's famous physics law states that people moving at different relative speeds perceive the same event at different times. This concept extends beyond science and applies to our daily lives. What we see changes depending on our perspective. "Buddha in Africa" prompts us to reconsider relativity. A mission that began with love and compassion can be seen as coercion and oppression to others. In Africa, which has suffered from the imperialistic plundering of Western Christianity, we should consider whether Eastern Buddhism might be making similar mistakes. Please view this from an African perspective.



| Karmalink

카르마링크

제이크 웨치텔 | 미국 | SF 드라마

Jake Wachtel | U.S.A | SF Drama

2021 | 101 min |  | 2021 Santa F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과학이 발달한 근미래,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중국으로 가는 초고속 열차 개통으로 지역 사람들이 되거릴 위기에 처한다. 그곳에 살고 있는 소년 령 형은 밤마다 순금으로 된 불상 꿈을 꾸는데... 불상이 지역에서 쫓겨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하는 령 형. 거리의 떠돌이 소녀 스레이 리크와 함께 꿈속의 불상을 찾으러 다니기 시작한다.

In the near future, Phnom Penh, the capital of Cambodia is where science is advanced. With the opening of a high-speed train to China, local residents face the threat of eviction. A boy name, Leng Heng living there dreams of a Buddha statue made of pure gold every night. He is convinced that the Buddha statue will help prevent the eviction of his community. Along with a Street wandering girl Srey Leak, he begins searching for the statue from his dreams.

감독설명

Director's Bio

제이크 와철편은 미국의 영화 제작자로 글로벌 비영리 단체를 위한 단편 다큐멘터리 제작으로 작품 경력을 쌓아오고 있다.

Jake Wachtel is an American filmmaker. He began building his portfolio by producing short documentaries for a global non-profit organization.



프로그래머 코멘트

Programmer Comment

불교의 업보와 윤회 개념을 바탕으로 캄보디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묘사가 돋보이는 <카르마링크>는 미국 영화감독 제이크 와철크의 장편 데뷔작이자, 캄보디아가 제작한 최초의 SF영화입니다. 2021년 베니스영화제 비평가 주간에서 최초로 공개된 후 같은 해 산타페국제영화제 작품상을 수상하고, 2022년에는 보스턴SF영화제에 작품상 후보작에 지명되며 국제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불교와 과학이 교차하는 곳으로 관객을 이끄는 <카르마링크>와 함께 매력적이고 경이로운 탐험을 같이 시작해 보시죠.

Based on the concepts of karma and reincarnation in Buddhism, "Karmalink" is a depiction of Cambodia's past, present, and future. It is the feature debut of American filmmaker Jake Wachtel and the first sci-fi film produced in Cambodia. After its premiere at the Venice Film Festival Critics Week in 2021, it won the Best Film Award at the Santa F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he same year and was nominated for Best Film at the Boston Sci-Fi Film Festival in 2022, gaining international recognition. Join us on a mesmerizing and awe-inspiring journey with "Karmalink," which takes audiences to the intersection of Buddhism and science.



| The Zen Diary

열두 달, 흠을 먹다

나카에 유지 | 일본 | 드라마
Nakae Yûji | Japan | Drama
2022 | 111 min | **G**

제철 음식을 요리해 먹는 츠토무. 그런 츠토무의 이야기를 세상으로 꺼내려는 편집자 마치코. 계절이 흐르며 변해가는 츠토무의 밥상과 달리 방 한구석에 놓인 아내의 유골은 사계절 내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츠토무는 멀어지는 과거와 다가오는 미래 속에서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기 시작한다. 평범하면서도 아주 특별한, 사람 냄새 가득한 이야기.

Tsutomu cooks and eats seasonal foods. Machiko, an editor, wants to bring Tsutomu's story to the world. While Tsutomu's meals change with the seasons, his wife's urn, placed in a corner of the room, remain there throughout the year. Tsutomu begins to contemplate on life and death amidst a receding past and an approaching future. This is a universal yet intimate story, filled with the essence of humanity.

감독설명
Director's Bio

나카에 유지는 1980년 류큐 대학 농학부에 입학해 영화연구회에서 영화제작을 시작했다. 영화 외에도 TV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CF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Nakae Yûji entered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at Ryukyu University in 1980 and began making films in the film study club. Besides the movie work, he is actively involve in various fields such as TV documentaries, music videos, and commercials.



 프로그래머 코멘트

Programmer Comment

경칩의 시금치 무침, 소서의 매실즙, 입추의 오이 된장 속박이.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평범한 일이지만, 정신없이 일상을 보내며 계절감을 잃어버린 도시의 현대인에게는 특별하면서, 낯선 경험입니다. <열두 달, 흙을 먹다>는 제철 음식처럼 새롭지 않지만 특별하고, 잔잔하면서도 흥미로운 영화입니다. 더욱이 1970년대 일본 락의 얼굴이었지만 지금은 자연인이 된 사와다 켄지와, <4월 이야기>의 히로인 마츠 다카코를 만나는 일은 음식의 맛을 더하는 천연 양념과 같이 보는 즐거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Spinach salad in early spring, plum juice in doorstep of summer, miso cucumber pickle in Autumn. Consuming seasonal foods is very natural and common, but for urban dwellers who have lost a sense of the seasons in their busy lives, it is a special yet unfamiliar experience. <The Zen Diary> is like seasonal food - not new but special, quiet yet intriguing. Furthermore, meeting Kenji Sawada, who was the face of Japanese rock in the 1970s and is now living a natural life, and Takako Matsu, the heroine of <April Story>, bring joy like adding natural seasoning to the good food.



| Dancing with Jikji

직지코드

우광훈, 데이빗 레드먼 | 한국 | 다큐멘터리

Woo Kwang Hoon, David Redman | South Korea | Documentary

2017 | 102 min |  | 2017 London East Asia Film Festival

“서구의 사제가 고려 금속활자 인쇄의 설계도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동양과 서양 금속활자 사이의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나선 데이빗과 제작진.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 직지를 소장 중인 프랑스 국립도서관을 방문하지만 이유도 모른 채 열람을 거부당한다.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그리고 다시 한국에 이르기까지 5개국 7개 도시 횡단을 통해 파헤쳐 보는 직지의 비밀!

“A Western priest brought the blueprint for Goryeo Metal movable type.” David and the production team set out to find the hidden link between Eastern and Western metal type. They visit the National Library of France, which houses the world’s oldest metal type-printed book, “Jikji,” but are denied access without explanation. Uncover the secrets of “Jikji” through a journey crossing five countries and seven cities: Italy, Switzerland, Germany, and Korea!

감독설명

Director’s Bio

우광훈 감독은 데뷔 17년 만에 세상에 공개한 입봉작 <직지코드> 이후 ‘킬리십오(2021)’, ‘제주 떡 우주를 빛다(2022)’, ‘인어춘몽(2023)’ 등 다양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영화감독이자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는 데이빗 레드먼. 미국 텍사스 맨스필드 출신으로 장편 다큐멘터리 <메이드 인 차이나>로 입봉했다. 직지를 서양에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참여한 <직지코드>에서는 감독이자 출연자로 등장한다.

Director Woo Kwang Hoon has continued to work on various projects after his debut film, <Jikji Code>, which it takes 17 years to complete. His works include ‘Kill 25 (2021)’, ‘Jeju Tteok, a Symbol of the universe (2022)’, and ‘Mermaid Dream (2023)’.

David Redman, a film director and producer, is from Mansfield, Texas. He made his debut with the feature-length documentary ‘Mardi Gras: Made In China(2005)’. Since he Motivated to introduce “Jikji” to the Western world, he participated in “Jikji Code” as both a director and an a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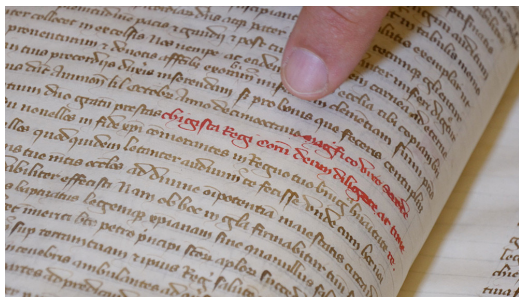


프로그래머 코멘트

Programmer Comment

“구텐베르크가 고려를 훔쳤을까?” 논쟁적인 다큐멘터리는 항상 재미있습니다. 보는 재미에 사유하는 즐거움을 더하기 때문입니다. 고려 금속활자와 구텐베르크 금속활자 사이의 연계 가능성, 그리고 이것을 추적하는 제작진의 고난, 대비되는 캐릭터 등은 다큐멘터리의 흥행 공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천착하며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만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Did Gutenberg steal from Goryeo?” Controversial documentaries are always intriguing because they add the pleasure of contemplation to the enjoyment of watching. The potential connection between Goryeo metal type and Gutenberg metal type, the hardships faced by the production team in their pursuit, and the contrasting characters all faithfully follow the formula for a successful documentary. This work allows you to fully enjoy the unique pleasure that documentaries provide by thoroughly exploring a single theme.



| Sugung - The Underwater Palace

수궁

유수연 | 한국 | 다큐멘터리

Yoo Su-Yeon | South Korea |
Documentary

2023 | 91min | 

서울시 무형문화재 판소리꾼 정의진 씨는 수궁가 전수자를 찾고 있다. 어전광대 정창업 씨의 증손녀이자 한국의 첫 판소리 인간문화재 정광수 씨의 딸인 그녀지만, 남자가 아닌 여자로서 이어가는 소리꾼 생활은 늘 고되고 파란 만장했다. 그렇기에 전수자를 찾는 일은 더욱 커다란 의미로 다가온다. 영화는 정의진이라는 이름의 역사를 훑으며, 사라져가는 판소리를 전승하는 여성들의 삶을 조명한다.

Jung Eui-jin, an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ansori singer from South Korea Seoul, is seeking an heir of her work - Sugungga. Despite being the great-granddaughter of the legendary clown Jeong Chang-up and the daughter of Korea's first human cultural asset in Pansori, Jeong Kwang-su, her life as a female singer in a traditionally male-dominated field has been challenging and tumultuous. Therefore, finding a successor carries significant importance. The film explores the life of Jung Eui-jin and spotlight on the lives of women who are passing on the fading art of Korean Pansori.

감독설명

Director's Bio

유수연 감독은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에서 영화영상제작학과 박사를 했으며 단편 <어릿광대>(2018) 연출하였다.

Director Yoo Su-Yeon receive her Ph.D in Dongguk University Media school as ilm & Video Production major. She directed her first debut short film "Young Crown (2018)".



 프로그래머 코멘트

Programmer Comment

인생은 영화처럼 마냥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고요하고, 때로는 지루합니다. 하지만 고요하고 지루하다고 해서 정체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면은 더욱 강렬합니다. 영화는 오랜 멸시와 무관심 속에서도 소리를 놓지 않았던 여성이 자신의 뒤를 이을 또 다른 소리꾼을 찾고 있습니다. 약보도 없이 오로지 소리로 전승되는 판소리를 다룬 영화는 고요한 바다가 품고 있는 파도의 휘몰이 마냥 한국 여성의 진면목을 하나의 스냅샷처럼 잘 포착하고 있습니다.

Life is not always as dramatic as a movie. It is mostly quiet and sometimes boring. However, being quiet and boring does not mean it is stagnant. That's why the undercurrent is even more intense. The film depicts a woman who, despite enduring long-standing contempt and indifference, has not abandoned her voice and is seeking for her heir singer. The film, dealing with Pansori, which is passed down solely through voice without any musical scores, captures the essence of Korean women like a snapshot of the waves hidden in a calm sea.



| Holy Punch

목스박

고훈 | 한국 | 드라마

Ko Hoon | South Korea | Drama

2024 | 97min | 15

왕갈비파의 행동대장 경찰과 태옹은 삼거리파의 습격 속에서 각각 천사의 교회와 은신사에 몸을 숨긴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교회의 새로운 목회자로 추앙받는 경찰? 은신사에서 주지 스님을 모시게 된 태옹? 이런 틈을 타서 삼거리파는 더욱 활개를 치고 있고... 이에 분노한 박수 무당 형사 도필은 경찰, 태옹을 찾아가 삼거리파 두목 잡기 연합을 결성한다. 목사, 스님, 무당의 탈을 쓴 세 사람의 좌충우돌 연맹기!

In the midst of an attack of the Cross-road gang, Kyung-chul and Tae-yong of the Big Rib gang seek refuge in the Chun-sa Church and the Eun-sin Buddhist temple. Yet upon regaining consciousness, Kyung-chul is revered as the new pastor of the church. And Tae-yong ends up serving the chief monk at the hermitage. Meanwhile, the Cross-road gang spreads its wings even further. Enraged, the shaman detective Dophil forms an alliance with Kyung-chul and Tae-yong to capture the leader of the Cross-road gang. It's a wild and tumultuous alliance among a pastor, a monk, and a shaman!

감독설명

Director's Bio

고훈은 제주 출신의 영화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 한양대학교에서 연극영화학 박사 과정을 마쳤다. <을의 로맨스>(2016), <신혼여행>(2017), <어멍>(2018), <마흔>(2018), <구마적>(2019), <그날의 딸들>(2023) 등 꾸준한 작품 활동을 이어왔으며 2020년 53회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종이꽃>으로 백금상을 수상했다. 2024년 공개된 <목스박>은 그의 첫 상업 코미디 영화다.

Go Hun is a film director and screenwriter from Jeju South Korea. He completed his Ph.D. in Theater and Film Studies at Hanyang University. His consistent work includes films like "Romance of the Eul" (2016), "Honeymoon" (2017), "Eomung" (2018), "Forty" (2018), "The King of Fighters" (2019), and "April Tragedy" (2023). In 2020, he won the Platinum Award at the 53rd Housto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for "Paper Flower." His latest film, "Holy Punch," released in 2024, is his first commercial comedy movie.



 프로그래머 코멘트

Programmer Comment

시인 바이런은 인생이야말로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했습니다. 시인의 고찰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은 항상 스트레스로 가득 찬 비극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퇴근 후 소주 한잔, 집에서 반겨주는 딸의 웃음소리에 찰나의 행복을 느낍니다. <목스박>은 우리에게 이러한 즐거움을 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영화는 아닐 수 있지만, 웃고 싶어질 때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영화입니다.

The poet Byron said that life is a comedy from a distance, but a tragedy up close. Even without the poet's reflection, our daily lives are often a continuous series of tragic moments filled with stress. Therefore, we find fleeting joy in a glass of wine after work and in the laughter of a daughter who greets us at home. "Holy Punch" is a film that delivers us such pleasures. While it may not be a best film, it is a good one that provides joy when we wish to laugh.



| Will you please stop, please

더 납작 엎드릴게요

김은영 | 한국 | 드라마

Kim Eun Young | South Korea |
Drama

2024 | 63min | 

사찰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는 헤인. 호칭은 보살, 주 업무는 교정교열. 추가 업무는 진상 고객들에게 시달리기! 벌써 입사 5년 차지만 아직도 막내 신세를 벗어나지 못한 그녀는 '습관성 급성 증후군'에 걸렸다. 하지만 카드값과 생활비 때문에 퇴사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 오늘도 극락과 지옥을 오가고 있는 헤인은 과연 성불할 수 있을까? 절 안에서 펼쳐지는 오피스 드라마!

Hye-in works at a temple publishing center. Her nickname is bodhisattva. Her job is proofreading and editing. In addition, she must deal with difficult & rude customers! Even after five years on the job, she still hasn't escaped being the junior staff and she must crawl to all the people in order to survive. However, due to credit card debts, quitting her job is an unthinkable option. Can Hye-in achieve enlightenment as she oscillates between heaven and hell everyday? An office drama unfolds within the temple!

감독설명

Director's Bio

김은영은 2013년 영화 <고추가 사라졌다!>로 데뷔한 이후 감독, 각본, 제작, 편집, 미술 등 다양한 분야를 오가며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더 납작 엎드릴게요>를 통해 25회 정동진독립영화제 팽그랑 동전상과 13회 충무로 단편 독립영화제에서 장편/독립영화 부문 특별언급상을 수상했다.

Kim Eun-young debuted with the film 'Where is my peper!' in 2013 and has since been active in various fields including directing, screenwriting, producing, editing, and art direction. Through <Will you please stop, please>, she won the Clanging Coin Award at the 25th Jeongdongjin Independent Film Festival and received a Special Mention in the Feature/Independent Film category at the 13th Chungmuro Short Independent Film Festival.



2024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

 프로그래머 코멘트

Programmer Comment

사찰과 회사라는 기묘한 조합이 주는 신선함에 눈길이 갑니다. 많은 사람이 일터에서 겪는 문제를 종교에서 해소하려는데, 영화에서는 회사가 사찰입니다. 그렇다면 주인공은 일터에서 겪는 문제를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웃픈 현실이 주는 설정은 성장스토리로 이어집니다. 동자승 마냥 주인공은 서투름을 극복하고 느끼지만 한걸음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잔잔한 미소를 짓게 합니다.

The unique combination of a temple and a company catches the eyes with its freshness. Many people try to resolve work-related issues through religion, but in this movie, the workplace is the Buddhist temple. So, where should the protagonist seek advice for work problems? This ironic reality presented turns this movie into a growth story. Like a novice monk, the protagonist overcomes clumsiness and grows slowly but constantly. This growth brings a gentle smile to the viewers.





단편

국제 공모를 통해 엄선된 총 23편의 국내외 단편영화를 3개의 컬렉션으로 구성하여 국내 관객들에게 처음으로 제공한다.

23 domestic and foreign short films. Selected through international competitions, are organized into three collections and introduced to audiences for the first time.

Short Collection I

단편 컬렉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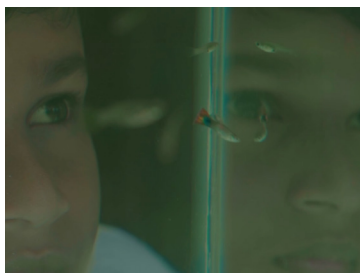
| House of small Fishes

작은 물고기의 집

비빈 에주플라칼 | 인도 | 극영화

Bibin Ezhuplackal | India | Fiction |

2024 | 6min | G



토니는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후 죽음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 선생님에게 물어본다. 또한 토니는 자신이 키우던 물고기도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토니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물고기가 죽어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어머니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을 말해준다. 각자에게 맞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토니, 집에서 키우고 있던 물고기를 개울가로 보내준다.

Ever since hearing the news of his classmate's father's death from school A boy named Tony has some doubts and questions about death and life after. His teacher tells him exactly what to do. Tony, who loves fish, asks his mother about the fish dying. Mother tells him the difference between humans and animals. Tony recognizes that each has it's place. He returns the fish he keeps at home and throws them into the stream.

| Divination (Aakhat)

점술(아캇)

아차리아 고팔 | 네팔 | 다큐멘터리

Acharya Gopal | Nepal | Documentary |

2021 | 15min | G



네팔의 깊은 산속 마을에서 농부로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늙은 무당. 마을 사람들은 병과 고통에 시달릴 때마다 그에게 도움을 청해왔다. 어느 날, 무당은 자신의 치유 능력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무아지경에 빠져 진언을 외우는 것도, 수탉을 제물로 바치는 것도 더 이상 효과가 없다. 신은 그에게 응답하지 않는다. 너무 나이가 든 탓일까? 아캇은 고요하고 사색적인 모습으로, 삶의 끝에 직면한 무당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In a village deep in the mountains of Nepal, an aging shaman ekes out a living as a farmer. Since his childhood, the villagers have called him whenever they've been plagued by illness and suffering. One day, when he is asked to heal a sick man, his healing powers no longer work. Neither his trance-like recitation of mantras nor the sacrifice of a rooster has any effect. The gods don't hear him. Has he become too old to be a healer? In tranquil and contemplative images, AAKHAT tells the story of a shaman who is facing the end of his life.

| The dead track

데드 트랙

안토니오 마시오코 | 이탈리아 | 극영화

Antonio Maciocco | Italy | Fiction |

2023 | 24min | 



직장을 잃은 토마소는 사르디니아로 돌아온다. 절망에 빠져 철로에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하는데. 한편, 이것은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는 철로다. 외롭고 쓸쓸한 토마소는 버려진 역에 사는 괴짜 프랑코를 만난다. 그는 오래된 가족의 포도밭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과거로 되돌아가 어린 시절의 와인인 누라게 시대에 생산된 와인을 음미하고 싶다는 독특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토마소는 망설이지만, 프랑코의 모험을 돕는다. 이 만남으로 토마소는 상상하는 법과 삶을 긍정하는법을 배운다.

Having lost his job, Tommaso returns to Sardinia. Desperate, he decides to put an end to it all by lying on the railroad tracks. However, it is a dead track, yet another line suppressed. The lonely and disconsolate boy meets Franco, a singular character who lives in an abandoned station. The man has a peculiar goal: to put the ancient family vineyard back on its feet, to go back in time and savour the wine of his childhood, a wine produced since the Nuragic era. Tommaso, initially hesitant, helps Franco out with his venture. Thanks to this meeting, the boy will learn to face life with more imagination and lightness.

| Quandary

진퇴양난

에부베키르 세파 악불루트 | 튀르키예 | 극영화

Ebubekir Sefa Akbulut | Turkey | Fiction |

2022 | 10min | 



환경오염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사라지고 있는 세상. 배고픈 어부는 천신만고 끝에 호수에서 물고기를 찾아낸다. 그는 굶주림과 양심 사이에서 고민한다.

In a world where vitality is gradually decreasing due to environmental pollution, the fisherman who cannot find food establishes a bond with the fish he caught in the lake as a result of long efforts. He is torn between hunger and conscience.

| Saksham

삭삼

아징카 P 파틸 | 인도 | 다큐멘터리

Ajinkya P Patil | India | Documentary |

2023 | 9min | 



장애우들의 학교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시각 장애 아동들이 앞장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지진에서도 살아남는다.

When a moderate-magnitude earthquake strikes a school for the visually impaired, visually challenged children not only survive the tremors but also save the lives of their beloved.

| Trickle

물방울

지미 차오 | 대만 | 극영화

Jimmy Chao | Taiwan | Fiction |

2023 | 15min | 



‘두 명의 소년은 반 명의 소년이며, 세 명의 소년은 소년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바다에 침식된 외딴 동굴에서 세 명의 수도승은 물 부족에 시달린다. 한 수도승이 “아비즈냐(불교의 초자연적 능력)”를 사용해 이 문제를 해결하자 제안한다. 아비즈냐를 얻기 위해서는 온 정신을 모아 명상해야 하며, 이를 통해 물을 포함해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젊은 수도승은 열심히 수행을 하지만 그들의 호수는 갑자기 말라버린다. 그는 그 전설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As the proverb goes: two boys are half a boy, and three boys are no boy at all. In a secluded, sea-eroded cave, three monks faced a constant water shortage. The thin monk suggested using “Abhijñā (supernormal powers in Buddhism)” to solve the issue. To gain Abhijñā, one must meditate undistractedly, granting powers to create anything, including water. The young monk practiced diligently, but the lake they relied on for water suddenly dried up. He realized that the legend may be a fabrication...

Short Collection II

단편 컬렉션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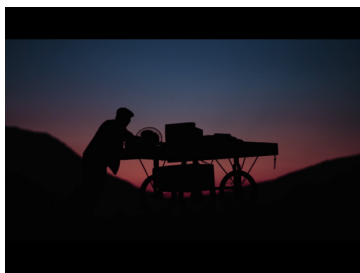
| Tradition

전통

알리 리자 바야지트 | 튀르키예 | 극영화

Ali Rıza BAYAZIT | Turkey | Fiction |

2023 | 15min | 



고철상 살림은 방금 만난 재단사 아템의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난다. 그의 기억을 따라 떠나는 여정. 그 기억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림은 공권력에 맞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Junk-dealer Salim sets off on a journey to find the lost cat of Tailor Adem, whom he has just met, and in order to keep Tailor Adem's memory alive, he must raise his voice against authority.

| Household waste collection

생활폐기물 수거

알무데나 바스케스 | 스페인 | 극영화

Almudena Vázquez | Spain | Fiction |

2022 | 4min | 



후안은 피자박스에 묻어 있는 기름이 재활용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 채 종이와 판자 재활용통에 피자박스들을 버린다. 파트리는 자신이 정말로 환경을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한다. 기름은 어디에 버리는지? 배터리는? 토너는? 바예카스 사람들의 쓰레기통을 살펴보는 것만으로 우리 모두의 삶은 변화할 것이다.

Juan throws some pizza boxes into a paper & cardboard recycling bin and he doesn't realize that the grease makes them non-recyclable. Patri begins to doubt his commitment to the environment. In which bucket is the oil thrown? And the batteries? And the toner? A tour through the Vallecas neighborhood's containers that will change their lives forever.

| See You

또 봐요

알렉산더 슈텝셀 | 폴란드 | 극영화

Aleksander Stećel | Poland | Fiction |

2023 | 14min | 



은퇴한 시각 장애인 배우가 수년 만에 다시 무대로 돌아온다. 그는 젊은 메이크업 아티스트 덕분에 한때 잃어버렸던 감정을 되살린다. 인간관계의 아름다움과 긍정을 이야기하는 영화.

The film "See You" tells the story of a retired, blind actor who returns to the stage after many years. There, thanks to a young make-up artist, he revives the feeling he once lost. It is a film about the beauty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power of positive feelings.

| Smile

미소

김정호 | 스페인 | 애니메이션

Kim Jung-ho | South Korea | Animation |

2024 | 7min | 



김연우와 아버지가 함께 떠나는 캠핑여행. 아버와 딸은 자연 속 명상의 시간을 통해 가족 간 사랑과 그 의미에 대해 되새겨본다.

Yun-woo and her father embark on a camping trip into nature. During their time together in the wilderness, they meditate and reflect on the love and meaning within their family.

| 1996

1996

라몬 마스카로스 | 스페인 | 애니메이션
Ramon Mascaros | Spain | Animation |
2022 | 8min | **G**



한 소녀와 그녀의 아버지는 가족 별장으로 여행을 간다. 그곳에서 그들은 과거를 회상하며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한다. 부모와 자식 간 충실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

The film "See You" tells the story of a retired, blind actor who returns to the stage after many years. There, thanks to a young make-up artist, he revives the feeling he once lost. It is a film about the beauty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power of positive feelings.

| 50 to 350

50에서 350

미라 차우다리 | 인도 | 다큐멘터리
Meera Chaudhary | India | Documentary |
2023 | 13min | **G**



미라 차우다리가 연출하고 뉴 스트림 미디어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개 애호가(말라바카) 여인은 떠돌이 개를 질병, 사고, 배고픔으로부터 구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여정에 함께 한다. 인도의 떠돌이 개들이 직면한 상황들을 조명할 뿐 아니라 인간과 동물 사이의 유대감도 다루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 말라바카는 델리의 알려지지 않은 골목에서 50마리부터 시작하여 350마리에 달하는 개들을 돌본다. 이 단편 다큐멘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개 애호가들을 위한 헌정영화다.

50 to 350 is a documentary directed by Meera Chaudhary and produced by New Stream Media. A dog lover's (Malabica) extraordinary journey takes centre stage, tells an untold story of the relentless struggles of people who tirelessly rescue street dogs from illness, accidents, and the clutches of hunger. The film not only highlights the incredible challenges faced by street dogs in India but also delves into the profound bond between humans and animals. Throughout the challenging times brought by the COVID-19 pandemic, she has gone from looking after 50 to 350 dogs in the unknown alleys of Delhi. The short documentary is dedicated to unknown Dog lovers whose compassion knows no boundaries.

| Shirt Number 10

등번호 10

보리스 로닝 | 네덜란드 | 극영화

Boris Loning | Netherlands | Fiction |

2022 | 14min | 



레오는 부상으로 인해 프로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한 꿈이 좌절된다. 그의 옛 축구 코치 기어트가 레오를 응원하며 용기를 북돋는다. 레오는 다시 최선을 다해 꿈을 향해 달린다. 레오의 노력은 반드시 보상받을 것이다. 레오는 꿈의 무대에서 뛠 수 있을 것이다!

Leo's injury causes him to stop his journey of becoming a professional soccer player, but when his old soccer coach Geert motivates him, he is dedicated to accomplish his dreams of playing for a professional soccer club, who will call Leo to tell him some good news after all his hard work. He can play a match for them!

| My Monk Friend

나의 수도승 친구

이광 첸 | 중국 | 다큐멘터리

Yiguang Chen | China | Documentary |

2023 | 21min | 



사진이 취미인 한 티벳 승려가 담은 티벳 아바 지역의 모습들. 그 일상과 자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영상미. 승려의 삶을 통해 불교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작품

A visual story Tibetan monk, who has photography as a hobby. It shows the scenery of the Aba region in Tibet. The work allows viewers to experience the spirit of Buddhism through the beautiful visual harmony of everyday life and nature, along with the life story of the monks.

| Up to the sea, she weaves a dream

그녀는 바다까지 꿈을 엮는다

마리암 칼릴자데 | 이란, 이슬람 공화국 |
애니메이션 |

Maryam Khalilzadeh | Iran, Islamic Republic
of | Animation |

2022 | 9min | 



모든 전쟁에는 항상 패잔병들이 있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여성들이 있다. 이 여성들이 한땀 한땀 엮은 꿈은 그녀들을 먼 바다로 보낸다. 돌아올 길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계속해서 꿈을 엮는다.

In any war, there is always a soldier who has lost and the women who are waiting for him to return. The dreams these women weave carry them to the farthest seas. Knowing there is no return, they weave and weave to treat the wounds of war.

Short Collection III

단편 컬렉션 3



| The Baby Bubble

베이비 버블

이반 마르코비치 | 스페인 | 극영화

Ivan Marković | Spain | Fiction |

2023 | 9min | 



젊은 부부는 그들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한다. 아내의 산후 우울증은 그녀의 정신병을 더욱 악화시킨다.

A young couple is trying to repair their relationship, while the mother is going through a postpartum depression, slowly turning into a psychosis.

| Canvas

캔버스

산자이 찬드라세카란 | 인도 | 극영화

Sanjai Chandrasekaran | India | Fiction |

2023 | 15min | 



하위 카스트에 속하는 사람들은 신발을 신을 수 없다. 어떤 형태로든 차별은 인류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영화 캔버스는 하층 카스트의 거리 연극 예술가와 그의 손자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인도의 고전 문화 민속 연극인 테루쿠투를 배경으로 제작되었다.

People are not allowed to use footwear because they belong to Lower Caste! Discrimination in any form is a challenge to humanity. The film CANVAS portrays the story of a lower-caste street theater artist and his grandchild. The movie is created in the background of an Indian classic cultural folk theatre called Therukoothu(Street Theatre).

| The Photograph

사진

레슬 아슬락 | 튀르키예 | 극영화

Resul Aşlak | Turkey | Fiction |

2023 | 13min | 



신문사에서 일하는 야세민은 취재를 위해 전쟁 중인 시리아로 파견된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그녀는 일상으로의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다. 지금도 야세민은 시리아 전쟁의 상흔을 선명하게 기억한다.

Yasemin is sent by the newspaper she works for to take a picture of the events in Syria. Under the influence of what she saw, Yasemin cannot adapt when she returns to city life. Yasemin bears the scars of war without fighting.

| Cassette

카세트

티무르 무로도프 슈크라토비치 | 우즈베키스탄 | 극영화

Timur Murodov Shuxratovich | Uzbekistan | Fiction |

2022 | 14mi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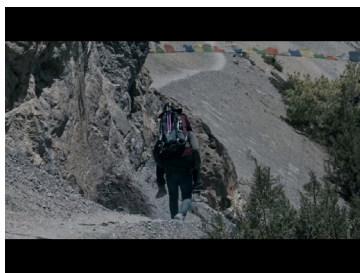
70세 아버지 사파르는 집안에서 오래된 비디오만 보는 것이 일상이다. 그는 러시아로 떠난 아들에게 화가 난 상태다. 사파르는 현대 기술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의 삶은 비디오테이프가 전부다. 어느 날, 비디오테이프가 고장 나고, 사파르는 강제로 새로운 현대를 살아야 하게 된다.

70-year-old father Safar watches videotapes without leaving the house. Father Safar was angry with his son and his son left for Russia. Father Safar does not understand modern technology. His life is a videotape. One day, the videotape breaks down, and Father Safar is forced to enter modern life.

| Windhorse

윈드호스

수닐 구룽 | 네팔 | 극영화
Sunil Gurung | Nepal | Fiction |
2023 | 10min | **G**



미국에 사는 불법 이민자 소남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 처음으로 만나는 아들 카르마와 함께 산중 수도원으로 여행을 떠난다. 소남은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한 채 떠나 보낸 아내에게 조의를 표하고 싶어 한다. 험한 산악지대를 따라 떠나는 기도 여행에서 그는 아들 카르마와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한다.

Sonam, an undocumented immigrant living in the US returns home after 20 years and embarks on a journey to high-altitude monasteries with his estranged son, Karma, whom he is meeting for the first time. Sonam wants to pay homage to his late wife, whose funeral he regretfully missed. On this prayer trip in the rugged mountain terrain, he strives to connect with his distant son, Karma.

| The Silence After The Storm

폭풍 후의 침묵

알리나 리즈완 | 파키스탄 | 다큐멘터리
Alina Rizwan | Pakistan | Documentary |
2023 | 11min | **G**



젊은 몽상가 쿠바르고스의 이야기 속으로 떠나는 여행. 비는 단지 하늘에서 내리는 물방울이 아니다. 쿠바르고스 이야기 안에서 관객들은 자연의 강한 힘에 의해 다시 태어난 세계를 엿볼 수 있고, 물은 끊임없는 변화와 치유를 만들어 낸다.

Embark with us on this journey as we unveil the narrative of a young Kubargoth dreamer. To him, rain is not just water from the sky. Through his eyes, we glimpse a world reshaped by the relentless forces of climate, where each droplet tells a tale of resilience and transformation.

| Samina

사미나

아메드 바르키아 | 튀니지 | 극영화

Ahmed Barkia | Tunisia | Fiction |

2023 | 12min | 



1960년, 15세 음악 애호가 사미나는 부모로부터 결혼을 강요당한다.

In 1960, SAMINA, a 15-year-old music enthusiast, is forced by her parents to get married.

| The Sweetness Of Air

공기의 달콤함

MD.랍비 부이안 | 방글라데시 | 다큐멘터리

MD.Rabbi Bhuiyan | Bangladesh |
Documentary |

2023 | 13min | 



전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전쟁 속에서 일상을 보내는 8세 소년. 전쟁에는 피, 죽음, 행진 외에도 그가 좋아하는 솜사탕을 살 수 있는 총탄이 있다. 만약 전쟁이 멈추고 유혈사태가 중단되면 총탄 공급도 중단된다. 순진한 소년은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솜사탕을 사야 할지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는 전쟁을 싫어하는 동시에 솜사탕을 사랑한다.

An 8 years old boy, who doesn't know anything about war but passes his daily life in the reality of war. Besides blood, death, and procession there are bullet shells for him in the war, using which he can buy his favorite cotton candy. If the war stops and the bloodshed quits, the supply of bullet shells also stops. The innocent boy starts to think about how he will buy cotton candies from now on if the war is over! But he hates war and loves candy floss at the same time.

| Complimentary close

맺음말

불교영화제이지만 너무 종교적이거나, 심오한 작품으로만 제한하지 않습니다. 영화제 동안 드라마, 코미디, 액션 등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작품을 상영하니 원하시는 많은 영화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세계일화 국제불교 영화제를 통해 일상에 내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목격하며 내 안의 불타를 경험 하시길 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Although One World One Flower International Buddhist Film Festival presents a Buddhist movies, we don't limit ourselves to overly religious or profound films. During the festival, we screen a variety of films including drama, comedy, and action that everyone can enjoy. We hope you take the opportunity to enjoy many films of your choice. At the same time, through the One World One Flower International Buddhist Film Festival, we wish for you to witness the teachings of Buddha inherent in everyday life and experience the Buddha within you. Thank you.



청소년 영화제

| Bad habit

악취미

1조

강사 | 최준석, 홍기훈

학생 | 김영아, 나지우, 설윤희, 오가연,
이강현, 장예은, 정시찬, 황지우

5분 | 스릴러



빈 강의실에서 도둑질을 하며 영상을 찍는 솔빈. 한 번도 들킨 적이 없기에 갑자기 들린 인기척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강의실에서 나오니 후배 민지가 솔빈을 기다리고 있다. 민지는 솔빈을 스토킹하며 도둑질 현장을 따라다니기 시작하고, 민지의 행동이 섬뜩하게 느껴진 솔빈은 결국 도둑질을 그만두게 되는데... 이 악취미의 끝은?

Sol-bin stealth filming himself in an empty classroom. Since he have never been caught before, he dismisses a sudden noise. When he exits the classroom, he finds his junior classmate, Min-ji, waiting for him. Min-ji begins following Sol-bin and checking the scenes of his thefts. Disturbed by Min-ji's actions, Sol-bin eventually decides to stop stealing. What will be the end of this story?

| PINOCCHIO

피노키오

2조

강사 | 손다겸, 신정목

학생 | 남예지, 오자훈, 이가연, 이도영,
최기원, 최병주, 최승일, 최윤석

6분 | 드라마



수혁을 좋아하는 소영. 절친 현지도 수혁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며 고백을 서두른다. 하지만 수혁은 소영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이를 현지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한다. 심통이 난 소영은 수혁에게 현지는 나쁜 아이라 말하고, 현지에게는 수혁으로부터 고백을 받았다고 말한다. 꼬일 대로 꼬여버린 상황 속에서 소영은 스스로에게도 거짓말을 하는데...

So-young likes Soo-heuk. Upon discovering that her best friend Hyun-ji also likes Soo-heuk, she rushes to confess her feelings. However, Soo-heuk hands So-young a bouquet of flower and asks her to give it to Hyun-ji. So-young tells Soo-heuk that Hyun-ji is a bad person and falsely tells Hyun-ji that Soo-heuk has confessed his feelings to her. As the situation becomes increasingly tangled, So-young begins lying to herself as well...

| Why weren't you careful?

조심하지 그랬어

3조

강사 | 김찬년, 이재경

학생 | 강서연, 구소울, 구승효, 김예람, 김주희,
노희진, 류주안, 선지민, 이소현

5분 | 코미디 스릴러



여주에게 고민이 생겼다. 좋아하는 선배와의 데이트와 아이돌 팬미팅 날짜가 겹친 것! 친구 라희는 선배와 데이트하며 현실적인 사랑을 하라 조언하지만, 세미는 겨우 당첨된 팬미팅에 참석하라 말한다. 둘 중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는 여주 대신 라희와 세미가 데이트와 팬미팅을 가게 되는데... 오히려 웃음을 짓는 여주? 과연 여주가 숨기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

Yeo-joo faces a dilemma: her date with a senior she loves coincides with a fan meeting with her favorite idol! Her friend Ra-hee advises her to choose the date and experience the real romance. Whereas, Semmy encourages her to attend the hard-won fan meeting. Since Yeo-joo unable to decide, Yeo-joo ask Ra-hee and semmy go to the date and the fan meeting. Yet, Yeo-joo is seen smiling. What plot is Yeo-joo planning?

| Hello, Summer

안녕, 여름

4조

강사 | 손민영, 이종원

학생 | 김연재, 김주완, 서연호, 윤서현,
이주원, 이재현, 이현지, 정예지

7분 | 드라마



여름이는 여름이 싫다. 여름이라는 계절이 올 때마다 이름으로 놀림받은 기억들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결국 개명을 하겠다고 다짐하는데... 친구 서은과 하온은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닌 마음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자기 이름을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자 하는 여름이의 마음 성장기.

Summer hates her name. Every time the Summer season arrive, she is reminded of the times she was teased because of it. Eventually, she decides to change her name. However, her friends Se-Eun and Ha-on help her realize that what truly matters is not the name but the heart. This is the story of Summer's inner growth as she learns to embrace her name and She becomes enlightened about how to love herself.

| Gaon & Donghwa

가온의 동화

5조

강사 | 전문성, 조우정

학생 | 김난향, 김단아, 김선우, 김태민,
김혜수, 이소은, 황영현

7분 | 드라마



발표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가온. 며칠 앞으로 다가온 발표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 그러던 중 자신감 넘치는 친구 동화를 만나게 되는데... 동화는 가온에게 발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주며, 자신감을 가지게 도와준다. 드디어 다가온 발표일. 가온은 공포증을 이겨내고 성공적으로 발표를 마치고자 한다.

Ga-on has a fear of public speaking. While her presentation just a few days away, she is feeling anxious. One day, she meets Dong-hwa who is full of confidence. Dong-hwa helps Ga-on to realize the essence of a presentation. Dong-hwa supports Ga-on in gaining confidence. Finally, the day of the presentation arrives. Ga-on is determined to overcome her fear and successfully complete her presentation.

Organization

조직 구성

조직위원회

Organizing Committee

조직위원장

Chairman

주윤식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윤재웅

동국대학교 총장

조직위원

Organizing Committee Members

정연만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

김상규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

이한구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성상현

동국대학교 기획부총장

최응렬

동국대학교 교무부총장

정영식

동국대학교 연구부총장

집행위원회

Executive Committee

집행위원장

Festival Director

최진수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 졸업,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 총동문회장 역임

정달영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 졸업, 현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장

집행위원

Executive Committee Members

차승재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영화영상제작학과 교수

김종완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영화영상제작학과 교수

김정환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영화영상제작학과 교수

양운호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영화영상제작학과 교수

이원덕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영화영상제작학과 교수

김정호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영화영상제작학과 교수

만드는 사람들

Staff

사무총장

Director General

이강석

Kangsuk Lee

네트워크위원장

Network Chairman

김종필

Jongpil Kim

대외협력실장

Director External Cooperation

장성원

Seongwon Chang

프로그래머

Programmer

김세환

Sehwan Kim

사무국

Secretariat

김범중

Beomjung Kim

김삼현

Samhyun Kim

강유진

Yujin Kang

서주한

Juhan Seo

이근혁

Geunhyeok Lee

김시호

Siho Kim

박지희

Jehae Park

진성현

Sunghyun Jin

홍기훈

Kihoon Hong

이재경

Jaekyeong Lee

김성환

Seonghwan Kim

박규리

Gyuri Park

운영위원

Steering Committee

| | | | |
|-----|-----------------|-----|-----------------|
| 고정필 | Jeongpil Ko | 송경호 | Kyungho Song |
| 권경하 | Kyunggha Kwon | 윤미정 | Mijeong Yoon |
| 김미행 | Mihaeng Kim | 윤병관 | Byeonggwon Yoon |
| 김민경 | Minkyung Kim | 이계문 | Gyemun Lee |
| 김용준 | Yongjun Kim | 이등규 | Dongkyu Lee |
| 김인수 | Insoo Kim | 이상민 | Sangmin Lee |
| 김종찬 | Jongchan Kim | 이상호 | Sangho Lee |
| 김진섭 | Jinseob Kim | 이종경 | Jongkyung Lee |
| 김형중 | Hyungjung Kim | 정주화 | Joohwa Jeong |
| 문홍식 | Hongsik Moon | 정한신 | Hansin Jeong |
| 박성기 | Sungki Park | 최준영 | Junyoung Choi |
| 박태선 | Taesun Park | 한상권 | Sanggwon Han |
| 사기순 | Gisun Sa | 홍학표 | Hakpyo Hong |
| 성채현 | Chaehyeon Seong | | |

행사운영

Event Management

| | |
|-----|--------------|
| 이정희 | Jeonghui Lee |
| 김덕한 | Duckhan Kim |
| 문혜린 | Hyerin Moon |
| 이현구 | Hyunkoo Lee |
| 허효주 | Hyoju Heo |

디자인

Design

| | |
|-------|-------------|
| 이도플래닝 | Idoplanning |
|-------|-------------|

웹사이트

Website

| | |
|--------|---------------|
| 퓨람 | Fulam |
| 미디어밸런스 | Media balance |

번역&자막

Translation&Subtitles

| | |
|-------|---------------|
| 한큐픽처스 | HANQ Pictures |
|-------|---------------|

Index

색인

| 페이지 | 영화제목 |
|-----|---------------------|
| 22 | 송곳니와 수염을 가진 여인을 찾아서 |
| 24 | 다시 태어나도 우리 |
| 26 | 어른 김장하 |
| 28 | 아프리카의 부처 |
| 30 | 카르마링크 |
| 32 | 열두 달, 흠을 먹다 |
| 34 | 직지코드 |
| 36 | 수궁 |
| 38 | 목스박 |
| 40 | 더 납작 앞드릴게요 |
| 45 | 작은 물고기의 집 |
| 45 | 점술(아캇) |
| 46 | 데드 트랙 |
| 46 | 진퇴양난 |
| 47 | 삭삼 |
| 47 | 물방울 |
| 49 | 전통 |
| 49 | 생활폐기물 수거 |
| 50 | 또 봐요 |

| 페이지 | 영화제목 |
|-----|-----------------|
| 50 | 미소 |
| 51 | 1996 |
| 51 | 50에서 350 |
| 52 | 등번호 10 |
| 52 | 나의 수도승 친구 |
| 53 | 그녀는 바다까지 꿈을 엮는다 |
| 55 | 베이비 버블 |
| 55 | 캔버스 |
| 56 | 사진 |
| 56 | 카세트 |
| 57 | 윈드호스 |
| 57 | 폭풍 후의 침묵 |
| 58 | 사미나 |
| 58 | 공기의 달콤함 |
| 62 | 약취미 |
| 62 | 피노키오 |
| 63 | 조심하지 그랬어 |
| 63 | 안녕, 여름 |
| 64 | 가온의 동화 |

| Page | Title |
|------|---|
| 22 | Looking for a Lady with Fangs and a Moustache |
| 24 | Becoming who I was |
| 26 | A Man Who Heals the City |
| 28 | Budda in Africa |
| 30 | Karmalink |
| 32 | The Zen Diary |
| 34 | Dancing with Jikji |
| 36 | Sugung - The Underwater Palace |
| 38 | Holy Punch |
| 40 | Will you please stop, please |
| 45 | House of small Fishes |
| 45 | Divination (Aakhat) |
| 46 | The dead track |
| 46 | Quandary |
| 47 | Saksham |
| 47 | Trickle |
| 49 | Tradition |
| 49 | Household waste collection |
| 50 | See You |

| Page | Title |
|------|-----------------------------------|
| 50 | Smile |
| 51 | 1996 |
| 51 | 50 to 350 |
| 52 | Shirt Number 10 |
| 52 | My Monk Friend |
| 53 | Up to the sea, she weaves a dream |
| 55 | The Baby Bubble |
| 55 | Canvas |
| 56 | The Photograph |
| 56 | Cassette |
| 57 | Windhorse |
| 57 | The Silence After The Storm |
| 58 | Samina |
| 58 | The Sweetness Of Air |
| 62 | Bad habit |
| 62 | PINOCCHIO |
| 63 | Why weren't you careful? |
| 63 | Hello, Summer |
| 64 | Gaon & Donghwa |

OIBFF